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쌔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www.kyungnam.or.kr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1968년 6월 1일 창간

kyungnam Middle & High School Alumni Bulletin

발행·편집인: 안강태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051)245-7551~3 / FAX: 245-7550
인쇄처: (주)동방인쇄
Tel(051)636-9477 / FAX: 636-9478

단기 4340년(음력 2월 24일)

2007년 4월 11일 수요일 제 365호

東南書同窓會報

제44차 정기총회 개최

모교 발전 위해 전 동문 합심 필요

예결산 원안통과·구본능(21회) 박홍조(22회) 등 14명 공로패

본부 제44차 정기총회가 지난 3월 28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소재 코모도호텔 총무홀에서 300여명의 동문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치뤄졌다(사진).

안강태 회장(11회·대선조선 대표이사) 주재로 열린 이날 총회는 유공동문 표창과 주요행사 보고에 이어 결산보고와 예산안 승인, 회칙 개정, 기타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사회:허홍숙 사무총장·19회).

안 회장은 유공동문 표창에서 전남지역동창회 고문 백연균(11회·전(주)삼정사 대표이사) 용마산악회 고문 정준수(15회·부산대 교수) 등 지역, 직능·동호회 발전유공자로 6명, 2006년 모교 방문 험커밍데이 행사공로자 8명 등 모두 14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다(수상자 명단 별표 참조).

총회는 2006년 결산보고에서 △본부 운영(규모 1억 9,665만원) △야구후원회 운영(규모 2,925만원) △회보운영(규모 3,401만원) 등과 2007년 예산안에서 △본부 운영(규모 2억 1,632만원) △야구후원회 운영(규모 3,796만원) 등을 승인했다.

이어 회칙 개정에서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총무를 사무국장으로의 회칭 변경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본부, 동기회, 지역, 직능·동호회의 총무는 사무국장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안강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임 회장의 잔여임기 1년을 채

우고 다시 2년 임기의 회장직을 맡았지만 회장 기수가 높다는 견해들이 있어 솔직히 동문 여러분의 양해와 후배 기수에서 좋은 분의 주전이 있으면 회장직을 물려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 봤으나 규정은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과 가시적으로 차기 회장이 확정이 안 된 관계로 앞으로 남은 1년간의 회장직을 겸허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모교인 경남고 이전과 관련하여 "재경 동문과의 수차례 간담회와 기수별 대표자 회의까지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으며 우리 외 이전 이야기가 있는 몇몇 학교와 동문회에서는 향후 이전결정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는 협소한 부지·교통·소음·이전 후 학교 발전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이전 확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을 하든, 아니하든 간에 빨리 결정을 내려 학교이전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동요도 진정시키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하면서 이전을 찬성하는 분이나 반대하는 분이나 모두가 모교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며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는 영원한 용마 가족임을 강조하였다.

■회장단 보강 작업 계속

총회는 이어 감사 선출을 하여 방봉우 감사(10회) 후임으로 안상수(24회·신우회계법인 대표) 동문을 신임 본부 감사로 선출하

였고 현 집행부 임원(자문위원·부회장·감사)은 유임시키며 부회장의 경우 보강 작업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개회 선언에 이어 소개된 동문은 다음과 같다.

정소영(6회) 조대제(7회) 박동렬(8회) 고문, 이명(11회) 자문위원, 손부홍(15회) 남진현(19회) 이재호(21회) 박홍조(22회) 김용채(29회) 김두섭(34회) 임태영(40회) 부회장, 김태우(27회) 감사, 김종석(24회) 경고 교장, 하영수(17회) 용마산악회 회장, 김경진(27회) 경총회 회장, 김경종(27회) 울산지방법원장, 박태룡(26회) 울산지역회 사무국장, 정상국(29회) 마창지역 사무국장, 김병화(35회) 전남지역회 사무국장 등.

한편 축하 화환은 개성고등학교 동창회, 부경고등학교 동창회, 재진주지역 동창회 등 축전은 국회의원 권영길(15회) 권철현(19회) 동문 등이 보내왔다.

■경남고 이전 심도 있게 토의

이전과 관련하여 이길상(6회)·경아회고문 이현진(10회)·대야신문화회장·주우실(22회)·(주)대한통운부산지사장·정정남(31회)·동아대교수 동문들이 나와 찬·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김종석(24회) 경고 교장의 견해도 청취하였다.

대충 찬성 이유로는 해운대 재송동 예정부지 주변의 성장가능, 학군유리, 서구지역 인구감소, 서구지역 재개발 장기간 필요, 소음



공로패 수상자

지역·직능 동창회 발전 유공

◇백연균(11회·전남지역 동창회 고문·전(주)삼정사 대표)
◇정준수(15회·용마산악회 고문·부산대학교 상과대 교수)

◇이수창(17회·마산창원지역 동창회 자문위원·(주)남광식 유대표)
◇구본능(21회·재경 동창회 회장 그룹 회장)

◇강수경(21회·용마바둑회 회장·(주)DSG 대동월페이퍼 상무이사)
◇박홍조(22회·울산지역 동창회 회장·(주)삼우교통 대표)

홈커밍데이 행사 유공

◇김선동(10회·본부 동기회장·졸업 50주년 기념)

◇정인호(10회·재경 동기회장·졸업 50주년 기념)

◇노기태(20회·본부 동기회장·졸업 40주년 기념)

◇이맹기(20회·재경 동기회장·졸업 40주년 기념)

◇황철민(30회·본부 동기회장·졸업 30주년 기념)

◇김부종(30회·재경 동기회장·졸업 30주년 기념)

◇임태영(40회·본부 동기회장·졸업 20주년 기념)

◇이홍기(40회·재경 동기회장·졸업 20주년 기념)



Mercedes-Benz

주식회사 부산스타자동차

회장 유재진 (22회)

과장 오용승 (46회)

전화 010-6500-6404

E-volution

A new generation has arrived. The new E-Class



시 · 평

김 경 희(제9회)

재경동창회 고문·(주)용마공영 대표이사



1980년대 중반 노조의 폭동은 마치 전쟁터를 연상케 할 정도로 거칠었습니다. 경찰이 노조원들이 휘두르는 봉동이와 쇠파이프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는 현장은 TV를 통해 여과없이 방영되었습니다.

마침 TV를 함께 보던 모차르트를 좋아하는 LONDON대학 출신의 영국친구에게 “英國에서는 저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Oh, We have Mrs. Thatcher”라고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Pardon?”하고 다시 물었더니 역시 “We have Mrs. Thatcher.”였습니다. 여수상 대처는 영국 중부 광산지대에서 시작된 노동자의 거친 폭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여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을 참재웠습니다. 거친 노동운동으로 5등 국가로 전락했던 영국을 1등 국가로 회생시켰던 지도자 (Leader)였습니다.

포크랜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철도, 광산, 부두, 공장 등 곳곳의 노조들의 무분별한 파업을 종결시킨 대처수상은 Elite를 자처하는 이 친구는 “영국의 image를 적극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수상이었다”고 강한 신뢰감(Deep conviction)을 표현했습니다.

영국계 Jardine에 근무할 때 영국산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본 제품의 인도(Delivery)는 어떤 노조의 스트라이크와 상관없이 지킨다”는 Offer를 제출해야 했던 영국이 지도자의 정확하고 강한 Leadership으로 일류국가로 털바꿈한 역사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우리에겐 대처 수상이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고정관념”(Dogma)입니다. 현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익숙한 것에만 길들여져 있거나 기자관의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떤 결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를 지켜보면서도 고정관념에 묶여서 자기 혁신을 게을리 한다면 목표달성을 어렵습니다.

“모든 장애물이 곧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고 장애물을 찾자. 성공을 확신하는 것이 성공의 첫 걸음이다. 적극적 긍정적이라는 말은 성공에 이르는 또 하나의 열쇠이다. 이 말은 창조력을 개발하는 정신자세를 함양시킨다. 당신은 하면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믿으라 그러면 당신의 개발되지 않은 창조적 두뇌세포는 잠재적인 소극적 부정적 세포의 억압에서 끌려나기 시작할 것이다.” (Dr. Robert Schuller의 “현대인의 자기극복비결”에서) Dr. Schuller는 말한다. “혁신하라” 그리고 “성공을 기대하라”라고 강조합니다. 적극적 사고의 계임을 하면서 당신은 창조적 정신을 위축시키는 말을 살기라. 즉, “돈이 너무 많아 든다.” “그것을 할 여유가 없다.”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법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등의 말은 결코 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역경 앞에서 끌어내리기를 찾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포기하지 맙시다. 악속과 소망을 가지고 동창회의 설명하기 힘든 “해도 해도 안되더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고정관념?에서 깨어납니다. 생각의 틀을 깨어 봅시다. 동창회 사업은 회장이나 임원들만 행사에 참여하고 자기와는 무관?하다는 무의식중의 의식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 판단됩니다.

Leader가 피리를 불면 함께 춤을 추는 동창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역대 회장님들께서 취임식대 언급하셨던 “보교 60년사”를 비롯한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어 풀어 봅시다. 백자장도 맞들면 훨씬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시고(思考)를 개혁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승자의 인생각본을 짜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성공을 확신하는 것이 성공에의 첫걸음입니다.”(로버트 슬러) 반드시 성공하는 마인드 컨트롤기술을 다듬읍시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한때가 가장 배운 때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동문들이 절대적으로 신뢰를 보내는 지도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회장님을 믿고 존경합니다.

제13회 동기회 임원명단

- ❖ 고 문 : 김장웅, 차영일
- ❖ 회 장 : 오한수
- ❖ 부회장 : 김한규, 송창식, 신민철, 정삼영, 조준탁
- ❖ 감 사 : 강귀동, 김정일
- ❖ 총 무 : 추성윤

▶ 동기회 사무실 :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40-25번지 남양B/D 603호
(051)462-5913

본부 용마 장학회 예·결산 승인

우수 재학생 특별 장학금, 체육활동 지원비 신규 책정

본부 용마장학회는 지난 1월 30일 오후 6시30분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대어초밥 연회실에서 올해 첫 이사회를 열어 결산보고(규모 8,551만원)와 예산안(1억 744만원)을 승인했다(아래 표 참조).

인강태 이사장(11회·본부 회장·대선조선 대표이사)이 주재한 이날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13명, 재직 중 10명이 참석하였

으며 예·결산 승인에 이어 임기가 완료된 이사·감사 7명(장혁표 8회·방봉우 10회·인강태 11회·조길우 16회·서정승 17회·김원주 22회·김태우 27회)에 대한 교육청의 연임 승인이 남에 따라 후속조치로 법원 등기 절차 등을 밟기로 의결하였다.

한편 장학회 목적사업 중에는 경남고 감독 급여보조를 재경 구본능(21회·희성그룹 회장) 등

분이 전적으로 지원함에 따른 자출가능금액 확대와 장학재단 기본재산(16억 2천 8백만원)에 대한 연이자가 다소 증대됨으로써 여유 수입으로 기존 장학금 외에

▲ 우수 재학생 특별 장학금 2,000만원 ▲ 우수 특기 재학생 장학금 1,000만원 ▲ 체육활동 지원비 1,000만원 등을 신규로 확정하여 우수학생 유치·육성과 재학생 체력 증진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대학 학생 장학금으로 서울대 진학자뿐만 아니라 국립대학 성적 우수 학생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2007년 용마장학회 운영 예산서>

수입		지출	
과목	예산액	과목	예산액
전년 이월금	19,456,578	장학금	1.경남고 장학금 42,000,000 1)졸업우수 대학 학적 학생·학생회 회장단 6,000,000 2)재학생 장학금(1학년·2학년) 6,000,000 3)우수 재학생 특별장학금 20,000,000 4)우수 특기 재학생 장학금 10,000,000
이자 수입금	78,144,000	체육 지원금	1.경남고교 체육 지원금 24,000,000 2.경남중학 체육 지원금 11,160,000 3.체육 활동 지원비 10,000,000
법인세 환급금	9,845,870	법인세	1.법인세(이자 수입금액의 14%) 10,940,160
		일반관리비	1,372,500
		예비비	7,973,788
합계	107,446,448	합계	₩107,446,448

<장학회 임원 명단>

직위	성명	임기	비고
이사장	안강태(11회·대선조선 대표이사)	4년	연임
이사	박종구(5회·삼구 회장)	4년	전기2년
이사	장혁표(8회·청소년교육문화재단 이사장)	4년	연임
이사	현정준(11회·초당서회연구원장)	4년	전기2년
이사	남기용(12회·문교산업 대표이사)	4년	전기2년
이사	박찬호(15회·신승원테크 대표이사)	4년	전기2년
이사	조길우(16회·부산시의회 의장)	4년	연임
이사	서정승(17회·서정승산부인과의원장)	4년	연임
이사	이용흠(19회·일신설계 대표이사)	4년	전기2년
이사	김원주(22회·신동개발 대표이사)	4년	연임
이사	박재상(22회·천일고속 대표이사)	4년	전기2년
감사	방봉우(10회·이원협동회 대표)	2년	연임
감사	김태우(27회·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2년	연임

본부 동창회 제1차 이사회

본부 이사 대거 참석 성황 이루어

미납된 각종 미수금 2005년 이하 결손처리

본부 동창회 올해 첫 이사회가 지난 3월 20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소재 코모도호텔 히락정에서 열려 '06본부 운영 등 결산보고!와 '07년 예산안 심의를 한 후 승인하였으며 아울러 용마장학회 예·결산 보고!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수별 분기금 제도로 인하여 용마의 밤 계정을 2006. 11. 26일자로 본부 운영과 통합시켰으며 16회 육운석 동분의 긴급 제의로 2005년

이하 각종 미수금을 결손처분을 하고 2006년부터의 미수금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의결하였다.

아울러 동창회보를 본부 동창회에서 개인별로 회보구독료를 받고 직접 발송하는 방안을 사무국에 위임하기로 했다.

안강태 회장이 주재한 이날 이사회는 모교인 경남고! 이전 관련 사항을 토의할 예정이라고 미리 고지한 때문인지 본부 이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좌석을 메웠다.

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모교이 전은 동창회 뿐만 아니라 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지역 사회 등 여러 학교 공동체와 연관된 민감한 사항이므로 그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그 타당성과 조건이 모교의 발전에 부합되고 대다수의 동문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라면 전향적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고 “모교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시각을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해 보자”고 했다.

이전 찬성과 반대를 각각 표명하는 다수의 동문이 나름대로의 견해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였으며 이 문제는 정기총회에서 다시 심도있게 토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모교 방문 홈커밍데이를 축하합니다

50주년(11회) : 가을예정

40주년(21회) : 4월 28일

30주년(31회) : 5월 5일

20주년(41회) : 5월 5일

본부 동창회 회장단 일동

재경 '07정기총회-신년하례회 성료 지창수 동문(8회) 등 3명 '명예로운 용마상' 받아



지난 2월 7일 오후 7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재경동창회 2007년 정기총회 겸 신년하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두 행사를 동시에 개최 한다'는 개정 회칙(제 10조 2 항)에 따라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신년회로 한정돼 어느 해보다 참석률이 높아 315명의 동문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홍용찬 회장(16회·우성해운 대표이사)이 주재한 행사는 한준석(3회)·문택상(4회)·김경희(9회)·김성규(11회)·이규만

(12회) 고문과 본부동창회 정상천 고문(4회), 박희태(11회)·권영길(15회) 국회의원, 배재숙 수석부회장(17회)이 나와 '복' 시루떡을 함께 절단하며 동문들에게 정해년의 만복을 기원하는 행사를 가졌다(사진).

제 1부 정기총회에서 홍용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후배가 힘을 모아 동창회의 발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희태 국회의원 축사 후에는 김영삼(3회) 전 대통령 축전을 배재숙 수석부회장(17회)이 대독했다.

이날 수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명예로운 용마상 ▷지창수(8회) 오봉석(15회) 허승호(16회)

▲공로상 ▷반태호(14회) 신병식(24회) 박인균(29회) 정창규(31회) 이중식(34회)

▲자랑스런 용마상 ▷강홍조(16회) 이훈민(16회) 권철신(17회) 박종웅(21회) 김종인(22회) 김종배(23회) 이강식(23회) 김기표(26회) 김원정(26회) 전강석(26회) 이기우(27회) 박승준(27회) 김영찬(29회) 박성중(30회)

2006년 감사보고, 예·결산승인 후에는 회칙 일부를 개정하여 동창회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이사회 구성인원을 20명 이상으로 장학회 및 동호회를 추가로 명기했다(사회: 민신옹 사무총장·16회).

한준석 고문의 축배로 만찬과 함께 제2부 신년하례회를 열어 여흥과 푸짐한 행운권 추첨을 겸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최다참가기수상'에는 16회가 24명으로 1등을 차지했다. 이날 행사는 저녁 9시 김경희 고문의 지휘 아래 교가 제창을 끝으로 폐회됐다(사회: 김영찬 동문·29회).

연내과관산·학가산·영남알프스 일원 등정

용마산악회, 마·창지역 동문과 적석산 올라…



본부 용마산악회 제29차 정기산행대회(올해 첫 번째)가 지난 3월 11일 경남 마산 진전면과 고성군을 기르는 곳에 위치한 적석산(497m)에서 하영수(17회·한국치공구공연(주) 대표) 회장의 통솔로 펼쳐졌다(사진).

이날 오전 9시 부산진역 앞을 출발한 부산지역 동문 117명(동문 98명·가족 19명)과 마산·창원 동문 24명 등 총 141명의 용마가족은 오전 11시 적석산 주차장에서 하 회장과 신남석 대장(21회)의 인사말이 끝나고 장비적 검을 받은 후 발っぱ를 팔기 시작했다.

신남석 산행대장의 뒤를 따른 일행은 일암저수지~을나무재~구름다리를 거쳐 적석산 정상에 이르렀다(사진).

일행은 양촌원탕에서 복음을 즐기며 여복을 풀고(15:30~16:00) 대정식당과 진짜배기식당에서 두 팀으로 나뉘어 저녁식사로 돼지주물럭구이를 즐겼다(16:00~18:00).

일행은 이날 밤 7시30분에 부산 진역 앞에서 해단식을 치렀다.

한편 용미산악회 제30차 정기산행은 오는 6월 10일 경남 함양군 폐관산에서, 제31차는 9월 9일 경북 안동시 학가산(경부합동산행)에서, 제32차는 11월 11일 동창회 장기캠프 등반대회로 영남알프스 일원에서 각각 치른다.

시카고-부산 자매결연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김봉현(5회) 동문

부산시는 지난 해 11월 22일 존 행콕 센터에서 열린 오찬회동을 통해 우호협력 의정서에 합의했다. 이후 규년 1월 26일 부산-시카고 간의 자매결연 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하여 승인됨에 따라 올 상반기 중으로 양 도시 간 자매결연을 추진키로 했다. 그 동안 시카고 내 한인 동포 사회에서는 부산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부산-시카고 자매결연 체결운동이 전개되어 현

지에는 위원장 김봉현(제5회) 동문을 주축으로 자매결연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양 도시가 갖고 있는 선물거래소의 교류를 통한 경제교류의 활성화와 오는 2016년 하계올림픽 유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시가 1개 국가의 2개 도시와 자매관계를 맺는 것은 지난 2004년 1월 정부의 '자매도시 업무처리 규정'이 바뀌어 1국 1개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운동이 전개되어 현

연토록 한 제한이 없어진 이후 처음이다. 후쿠오카, 시카고와 자매도시 협정이 체결되면 부산시의 해외 자매도시는 19개로 늘어나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교류 다양화를 꾀하고 중부유럽의 도시들과도 자매결연 관계를 형성하는 등 대륙별 교류거점을 확보해 부산의 세계화와 시장개척 및 외자유치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카고 동창회 투고 내용)

신우회 정기총회



◀양건종 신우회장(19회·원쪽)이 경남고를 방문해 김종석 교장(24회·오른쪽)에게 모교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용마기독신우회 정기총회가 지난 1월 16일 오후 7시 행복한교회에서 개최되어 양건종(19회·만유우리교회 목사) 동문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아울러 임원진을

개편하였다. 1월 23일에는 양 회장, 이종승(16회) 지도목사, 도명세(2회) 교장이 경남중·고를 방문하여 모교후원금으로 각각 일백만 원을 전달하였다.

살며 사랑하며

수지에는 정평이라는 이름의 정류장이 있습니다. 서울로 가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5500번 버스를 탑니다. 어릴 때는 두 세 명이 타고 어릴 때는 대여섯 명이 타기도 합니다. 정평정류장은 시내버스, 시외버스, 직행버스 등이 경유하지만 노선별 버스 스텝이 세워져 있지 않아 승객들이 부질서하게 서 있는 곳입니다. 줄을 서지 않기에 버스가 도착하면 먼저 타기 경쟁이 벌어집니다. 좌석도 여유가 있고 타는 사람이 많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질서가 없으므로 늘 불편합니다. 승객들은 버스가 오면 일제히 도로경계석에 섰다가 차가 멈추면 문 쪽에

서 있는 사람이 먼저 타는 행운을 거머줍니다. 일찍 나와서 먼저 기다려도 소용없는 곳이 정평입니다. 정평 다음 정류장은 지역난방공사입니다. 여기서는 누구나 정확히 줄을 섭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정평에서 타면 저도 요즈음은 지역난방공사에 가서 버스를 탑니다. 줄이 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좌석이 없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 차를 타면 되니까요. 질서는 편한 것, 아름다운 것이라는 공익광고의 솔로건이 이 정류장에서 사

실로 입증됩니다.

두 정류장을 보면서 이것이 리더십의 메타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간단한 이치이지만 리더 혼자서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첫 사람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살려 주어야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첫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무리 전체가 혼란을 겪게 됩니다.

리더십과 관련해 오래 전 한 신문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공자가 오늘날 불후의 사상가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1

백년 후에 태어난 맹자의 공로가 지대했다. 석가의 가르침이 맥을 이어 가는 데는 아닌 존자의 비상한 기억력, 예수의 사상이 기독교로 발전하는 데는 사도 바울의 헌신이, 이런 인물을

온 태아의 혼자서 위대성에다 훌륭한 추종자들의 헌신에 의해 완성되고 계승된다. 앞장서서 끌고 가는 사람을 리더(Leader)라고 한다면 뒤따르며 밀어 주는 사람은 폴로어(Follower)라고 하겠다. 리더에게 리더십이 필요하듯 뒤따르는 협력자에게는 폴로어십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의 병폐로 리더십의 부재를 지적하는 사람은 허다하나 폴로

어십의 부재에서 문제를 풀어보려는 시도는 미약한 것이 현실이라 건전한 리더십이 작동되기가 어렵다.>

각 정당을 예로 들어보면, 첫 번째가 되겠다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두 번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두 번째 사람이 출현해야 부질서가 끝날 것입니다. 정치권 사람들이 수지에 와서 한 때는 정평에서, 다른 한 때는 지역난방공사 정류장에서 5500번 버스를 타보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사람, 정말 중요합니다.

- 서재경(SPR경영연구소 대표) 글
- 박영하(14회) 발췌

인 물

박성조 (9회)
베를린 자유대학교 종신교수
「다국적기업 비교연구 심포지움」에 참석


베를린 자유대학교 종신교수인 박성조 동문(9회·사진)은 영국 LEEDS(리즈) 소재 LEEDS 大學校에서 1월 24~25일까지 있은 「다국적기업 비교연구 심포지움」에 참석해 박성조 교수는 1월 25일 「Time to Market 이론」이란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한편, 세르비아의 메가트렌드 대학의 부총장이기도 한 박성조 동문은 2월 25일 동학교에서 수여하는 리비아 카다피 대통령 박사학위수여식에서 기념강연도 가졌다.


문재인 (25회)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
문재인 동문(25회·사진)은 지난 3월 9일 참여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다.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22회)에 합격한 문동문은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를 지냈으며 지난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뒤 2004년 2월 청와대를 떠났다가 이후 다시 청와대로 돌아와 시민사회 수석과 민정수석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5월, 사임 후 청와대를 떠나 현재까지 쉬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무특보로 활동했다.


김석농 (26회)
재정경제부 제1차관

김석농 동문(26회·사진)은 지난 2월 8일 재정경제부 1차관에 임명되면서 재경부를 떠난 지 5개월 만에 친정으로 금의환향하게 됐다.

김동문은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23회)에 합격 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1국장, 재경부 금융정책 국장, 재경부 차관보 등 재경부와 금융당국을 넘나들며 경제 부처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유의 돌파력과 추진력 때문에 참여정부에서도 요직에 등용됐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김태우 (27회)
부산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


김태우 동문(27회·사진)이 지난 1월 22일 제51대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에 선임되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동문은 사시 20회 출신으로 부산지법판사를 시작하여 울산지원, 부산고법에서 일했으며 지난 98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취임사를 통해 경제적 취약 계층과 서민층의 법률 서비스 강화 등 대폭 개편을 통해 여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천신일 (15회)
고려대 교우회장



천신일(15회·사진) 동문이 지난 3월 30일 서울 고대교 우회관에서 열린 고려대 교우회 정기총회에서 제28대 교우회장(임기는 2년)으로 선출됐다. 고려대 정외과를 졸업한 천동문은 대한레슬링협회장으로 체육계 발전에 기여, 지난해 10월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세종나모여행 주식 110여만 주(110억 원 상당)를 사회 환원 차원에서 고려대, 연세대, (사)국립중앙박물관회, (사)한국민속박물관회에 기부했다.

성상철 (21회)
서울대 병원장
뉴비전 선포식으로 글로벌 병원으로 도약


서울대 병원장인 성상철(21회·사진) 동문은 지난해 12월 13일 뉴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1999년 이후 7년 만, 뉴비전의 핵심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연구, 진료로 이니 세계적 수준에 있는 일부 암 치료 분야, 핵의학 및 영상 의학, 뇌신경분야, 어린이병원 등을 집중 육성, 타 의대 출신에 대한 문호 개방으로 우수한 의료계 리더 양성, 경제자유구역 청라지역에 500병상 규모의 분원을 지어 외국인 환자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김경종 (27회)
울산지방법원장 영진


지난 2월 단행된 대법원·법무부 인사에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하던 김경종 동문(27회·사진)이 울산지방법원장으로 영진했다. 김동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사법고시(19회)에 합격, 육군법부관으로 임용된 뒤 대구지법판사, 서울고법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의 입법론적 연구'라는 논문으로 지난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편 같이 진행된 대법원·법무부 인사에서는 조병현(28회) 동문이 서울고법 특별5부 부장판사로 영전, 옥준원(28회) 동문이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박성철(29회) 동문이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김운호(41회) 동문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었다.

하창우 (27회)
서울변협 신임 회장



하창우 동문(27회·사진)이 지난 1월 29일 서울변협사회 정기총회에서 제89대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하동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25회로 변호사 입무를 시작해 대한변협 흥보이사와 법무부 정책자문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를 맡았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변호사회 회원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꼭 필요한 길을 개척하는 네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만수 (28회)
KNN 사장



이만수 동문(28회·사진)이 지난 3월 16일 열린 KNN(부산방송) 사옥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KNN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동문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1981년 부산MBC 기자로 방송계에 입문했다. 1994년 KNN의 전신인 PSB 부산방송으로 자리를 옮겨 보도국장, 정책기획실장,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2005년 3월부터 상무이사 겸 iKNN 대표이사로 재직해왔다.

동기회 소식

제6회 동기회 회장 이길상 연임


제6회 동기회는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 30분 사상 소재 파라곤 호텔(배종권 상무이사·6회) 2층 뷔페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정기총회를 개최, 죄병수 국장의 사회로 결산 및 감사 보고에 이어 이길상 회장(경야회 고문)을 연임시켰다.

제22회 동기회 회장 임성규 선임


제22회 동기회는 지난 2월 7일 오후 7시 부평동 구포집에서 조순태 회장의 주재로 제1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성규 신임 회장(항도첨과(주) 부사장) 체제로 집행부를 새로 구성하여 부회장에 김명환 외 15명, 감사에 김병수, 국장에 조홍기 동문을 선출하였다. 조홍기 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는 50여명이 참석하여 결과보고, 예산안 통과, 임원선출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23회 동기회 회장 서승환 선임


제23회 동기회는 지난 2월 23일 오후 7시 시청 동백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영조 회장의 주재로 정기총회를 열었다. 회장인사, 경과보고와 결과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신임 회장에 서승환 동문을 선임했다.

서승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원 우의증진과 상부상조하는 제23회 동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제24회 동기회 회장 배재일 선임

제24회 동기회는 지난 해 12월 15일 오후 7시 교대앞 크리스탈부페에서 안상수 회장의 주재로 50여명의 동문들과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회장인사, 결과보고, 예산안 통과, 임원선출 순으로 진행되어 신임 집행부로 회장에 배재일, 국장에 김정석 동문을 선임했다.

배재일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타 동기회에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제26회 동기회 회장 김정곤 선임


제26회 동기회는 1월 16일 오후 8시 크라운호텔 석류홀에서 김태년 회장의 주재로 정기총회를 열었다. 회장에 김정곤(영진개발 대표), 부회장에 이영덕, 감사에 왕정일, 국장에 이정일 동문을 선출하였다.

이날 총회에는 80여명이 참석하여 회장인사, 결과보고, 예산안 통과, 주요행사 계획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당일 신년회 비용은 정영일 고문이 지난 해 12월에 있은 막내 은수근 결혼 축하답례로 후원해 주었다.

제18회 동기회 회장 남두진 선임

제18회 동기회는 지난 3월 7일 오후 6시 30분 서면 동기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 회장에 남두진(금강에식장 대표), 등산회장 후임에 손천의 동문을 선출하였다.

이날 총회에는 80여명이 참석하여 회장인사, 결과보고, 예산안 통과, 임원선출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27회 동기회 회장 이태주 선임

제27회 동기회는 지난 3월 26일 오후 7시 중앙동 무역회관 15층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철 회장의 주재한 총회는

5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 신임 회장에 이태주(동아대 학교 교수), 신임 국장에 김종욱 동문을 선임하였다. 이날 총회는 회장인사, 결과보고, 예산안 통과, 임원 선출순으로 진행되었다.

이태주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생하는 자세로 동기회를 잘 이끌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제28회 동기회 회장 김용진 선임



제28회 동기회는 지난 해 12월 8일 오후 7시 하모니웨딩 정기총회에서 김준배 회장의 주재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임 회장에 김용진(준해병원장), 신임 부회장에 양종명 동문을 선임하고, 국장에 김성희 동문을 유임 시켰다. 김성희 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는 50여명이 참석하여 결과보고, 예산안 통과, 임원선출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용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동문들이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 동기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29회 동기회 회장 김용채 선임

제29회 동기회는 지난 2월 23일 오후 7시 남천동 태평양횟집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식 회장의 주재로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결과보고, 예산안 통과 순으로 진행된 후 신임 회장에 김용채(복기화성 대표), 국장에 손일 동문이 선출되었다.

김용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동기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로 동기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제30회 동기회 회장 박진수 선임



제30회 동기회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광안리 대교횟집(서재원 동기 운영)에서 황철민 회장 주재로 정기총회를 열었다.

신임 집행부에 회장 박진수(부산일보사 논설위원), 국장 서민석·노치훈·우홍제 동문이 각각 선출되었다.

박 회장은 취임사에서 집행부를 중심으로 지역회 및 동호회 활성화시켜 활기찬 동기회를 꾸려가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인도네시아에서 개인전 전시차 10년만에 귀국한 박홍식, 마산·창원지역 동기회장 김백수 동문 등도 참석했다.

제32회 동기회 회장 이성호 선임



제32회 동기회는 지난 2월 7일 오후 7시 범일동 일출횟집에서 한문진 회장의 주재로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문영 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는 30여명이 참석하여 신임 회장에 이성호(주명성선박 대표), 수석부회장(기획)에 이관우, 감사에 예동해, 재정에 정성수, 국장에 이문영, 홈페이지 관리과장에 신승학 동문을 선임했다.

이성호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해 동기간 정보교환과 우의증진을 도모하겠다고 다짐했다.

제34회 동기회 회장 이성업 선임



제34회 동기회는 1월 17일 오후 7시30분 서면 녹산횟집에서 이수령 회장의 주재로 '07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40여명이 참석하여 이성업(동명농원 대표) 동문을 신임 회장 선임하고, 옥재명 동문을 국장에 유임 시켰다. 그리고 본부동창회 부회장에 김두섭, 이사에 박칠웅, 권병웅, 이재완 동문을 선임하였다.

한편 1월 30일 오후 7시30분 부산역 앞 사해방에서 열린 제1차 이사회 개최에서는 새로운 집행부가 동기회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회칙 일부를 변경하였다.

제36회 동기회 회장 김철원 선임



제36회 동기회는 지난 3월 15일 오후 7시 연산로타리에 보쌈진 문점 동강(김상백 동기운영)에서 최승호 회장의 주재로 임시총회를 열었다. 최승호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는 20여명이 참석하여 회장인사, 결과보고, 예산안 승인, 임원선임 순으로 진행되어 신임 회장에 김철원(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신임 국장에 우한주 동문을 선임했다.

제40회 동기회 회장 우영환 선임



제40회 동기회는 지난 3월 7일 오후 7시 중앙동 대한통운빌딩에서 임태영 회장의 주재로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회장에 우영환(태흥이기공업 대표), 부회장에 노인철 외 4명, 감사에 임태영, 국장에 한수열·김영진, 재무에 이강목 동문이 선출되었다. 이날 기타 안건으로는 흠키닝데이 행사 1주년을 기념하여 5월 5일 경부합동단합대회를 가지기로 했다.

제41회 동기회 회장 추교용 선임



제41회는 정해년 첫 정기모임을 2월 16일 저녁 7시 서년통영장어구이집에서 김득수 회장의 주재로 열었다. 이날 모임은 5월 5일에 있을 흠키닝데이 20주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추교용 신임 회장(추교용이비인후과의원장) 체제로 집행부를 새로 구성해 부회장에 홍석우 외 4명, 감사에 유수호, 국장 성찬기, 박인재 동문을 선임했다. 성찬기 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모임은 명절 전에도 불구하고 50여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지역회 소식

북가주지역회 회장 박병호(11회) 유임



북가주 지역동창회는 지난 1월 13일 오후 6시 Burlingame에 소재한 박병호 회장(11회)

집에서 12명의 동문과 부인 10명 등 모두 22명이 자리를 같이 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신년회 개최. 결과보고와 결산보고에 이어 박병호 회장을 유임시켰고 신임 국장에 정갑식 동문(21회)이 선임하였다.

참석한 전 동문의 새해 포부와 미국생활의 애환 등 유익한 토론과 대화로 11시가 넘어서야 아쉬운 작별을 고했다.

남가주지역회 회장 천병규(21회) 선임



남가주 지역동창회는 지난 해 12월 26일 오후 7시 I.A Down Town에 소재한 아로마센타 대회의실에서 약 80여명의 동문이 자리를 같이 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경과보고와 결산보고에 이어 신임 회장에 천병규 회장(21회), 신임 수석 국장에 조성우 동문(36회)을 선임하였다.

천병규 회장은 올해부터는 살아있는 남가주 지역동창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임사의 마지막을 마무리했다.

전남지역회 회장 진영술(24회) 선임



전남지역회는 지난 3월 10일 오후 4시 광양읍 봉강면 입구저수지변에 있는 솔잎산장에서 매년 치르는 큰 행사 중 하나인 고로쇠 물 먹는 모임을 가졌다. 모임은 전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정동화 동문(포스코 건설 부사장·24회)의 근무지가 이동됨에 따라 임원 선임부터 시작되었다. 고문에 백연균 동문(11회), 정철기 동문(13회), 신임 회장에는 진영술 동문(포스코 기술연구소 상무·24회), 부회장에는 박춘규 동문(27회). 이사에는 송명석 동문(28회) 외 4명을 선임, 사무국장에 김병화 동문(35회)을 유임시켰다. 이날 전남 전 지역과 하동에 거주하는 동문 및 그 가족들이 모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용 · 마 · 춤 · 추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화경 상불경보살품에 보면 상불경이라 는 보살이 있었는데 이 비구는 오로지 경을 득송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만을 행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네 그대들을 깊이 존경해 감히 업신여기지 아니하노니 그대들은 다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이로다”라고 하므로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이 있어 온갖 육을 하고 봉동이와 돌로 때리고 던졌으나 피해 멀리 달아나 다시 예배찬란해 똑같은 말을 하므로 교만한 승려와 대중들이 상불경이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이 보살은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여 예배찬란 하였으며 이 공덕

타인을 존경하는 마음

박상호 · 제26회 · 산태양건설 회장

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석존으로 환하였습니다. 이 보살을 경멸하고 매도하던 사람들은 1천겁이나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큰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간을 존경하고 경배하는 것은 쉬운 일 같지만 결코 쉽지 않으며, 인간으로서 가장 성스럽고 위대한 일임을 법화경에서 찬탄하고 있습니다. 인격의 존엄성은 우주에 가득한 보물로도 비견할 수 없는 지고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존귀함에 대한 경배는 인간으로서 가장 숭고한 행위이며 또한 수행이

고 많은 복운을 쌓는 선업의 길이며 타인을 경멸하고 음해하고 시기 질투하는 행위는 아비지옥의 악업을 쌓는 행위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는 타인을 존경하는 마음은 자신을 발전시키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들고 생명의 악동을 가져오게 하며 타인을 경멸하고 음해하는 마음은 자신을 스스로 파괴시키고 복운을 소멸시키며 고뇌를 증장시켜 불행해진다는 법화경의 비유입니다.

존경을 받는 것보다 존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말로 지극히 출중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슈타인은 타고르를 존경해 마지 않았는데 타고르의 영향으로 상대성이론의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석존과 가섭의 이심전심과 제나리를 크게 부흥시킨 관중과 포숙의 우정은 그 본질이 진심어린 존경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아킬레우스를 경배하여 영웅의 길을 걸었으며 키아시르는 알렉산더를 동경하여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인간을 존경하는 것은 인격의 연마이며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철경이며 위대한 성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동문끼리 서로 받들고 존경하여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형성되기를 기원합니다.

제 8 회

김호석=2월 별세.
장혁표=부산대학교 명예교수. 해운대 우1 대우마리나APT 106-504. 746-7971 · 011-590-1347.
정상현=2월 10일 강남문화센터에서 아들 재황군 결혼.

제 9 회

김용식=640 S.MAGNOLIA Ave #113 ANAHEIM CA 92804 U.S.A.
김 청=1월 1일 이북5도 위원장 취임.
이홍수=2월 6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차남 홍석군 결혼.
정위현=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7 한연APT 117동 602호. 031)703-1930 · 010-7735-2223.

제 10 회

김정학=경남 마산시 오동동 251-94. 055)246-1311 · 010-4494-1311.
김한조=중구 영주1 587 도경 오밸리스APT 1405. 466-4559.
서봉원=북구 화명2 벽산APT 106-1004. 959-2937 · 019-224-2937.
이경도=해운대구 좌동 대림APT 119-101. 704-2660 · 011-857-4602.
이현수=해운대 우동 1228 새한센서빌APT 101동 2502호. 747-9406 · 011-591-3222.
전병익=(변경) 761-2387.

제 11 회

신재걸=1월 16일 별세. 동강병원.
제 13 회

강상준=1월 27일 군인공제회관에서 막내 동진군 결혼. 02)449-0655. 011-301-0655.

강영삼=1월 12일 모친 별세. 019-209-9812.

강호정=1월 7일 로드비치호텔(해운대)에서 자녀 결혼.

고승구=1월 1일 홀리데이인서울호텔에서 자녀 결혼.

김규현=2월 14일 부친 별세. 서울삼성병원. 02)332-4802 · 019-9753-1403.

김소웅=2월 3일 호메르스호텔(광안동)에서 자녀 결혼.

김영문=3월 15일 모친 별세. 조은강안병원.

김정재(故)=3월 11일 AT Center에서 자녀 결혼. 02)534-1419.

김현곤=3월 24일 삼호침례교회에서 차남 결혼.

김홍안=1월 7일 모친 별세. 강남삼성병원. 011-526-9972.

박안효=3월 03일 모친 별세. 동아대학교의료원.

박홍일=3월 17일 해성노인대학 학장으로 취임.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소장 및 맑고 푸른 해운대21 운영위원장, 해성회 회장, (주)코마 대표. 018-260-2764.

서영웅=3월 14일 도심공항터미널 예식장에서 장남 결혼. 02)312-2433 · 011-307-4602.

성정호=2월 3일 모친 별세. 대동병원.

송문일=1월 20일 웨스턴조선비치

호텔에서 자녀 결혼.
심관섭=1월 20일 장인 별세. 서울의료원. 010-7373-3434.

안철환=2월 25일 별세. 분당차병원.

주지석=1월 8일 장모 별세. 서울삼성병원. 010-9588-8064.

한병조=사무실 이전. 504-8910.

한진희=1월 20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장남 결혼. 019-209-9812.

제 14 회

강민재=1월 26일 부친 별세. 영락공원. 011-9332-5461.

김도선=2월 20일 모친 별세. 강남성모병원.

김 민=1월 21일 모친 별세. 수지삼성병원.

김영대=1월 27일 노보텔 앤배서더에서 차녀 윤주양 결혼.

김일암=1월 20일 늘봄공원 예식부에서 차남 재옥군 결혼.

김종수=2월 3일 문막 벤엘교회에서 딸 지예양 결혼.

김철언=2월 부산대학교 수학과 교수로 정년퇴임.

박병선=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1435 골든스위트 서관 2003호. 747-4734 · (fax 747-4736).

박청길=1월 20일 대한통운빌딩에서 차남 경택군 결혼. 2월 부경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정년퇴임.

박현록=2월 25일 베스코 웨딩홀에서 장남 응진군 결혼.

류총일=2월 23일 부산롯데호텔에서 기념문집발간 및 부산대학교 의학과 교수 정년퇴임 기념식. 3월 2일 백병원 17대 병원장 취임.

이대홍=2월 24일 삼성화재빌딩에서 차남 재옹군 결혼.

이명재=2월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정년퇴임.

이의웅=3월 10일 센트럴시티웨딩 체리홀에서 장남 중목군 결혼.

정현우=2월 부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정년퇴임.

정의광=2월 경성대 경제학과 교수로 정년퇴임.

조돈만=울산광역시문화인협회 회장에 당선.

진성태=1월 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장남 현주군 결혼.

차동일=3월 13일 현대컨벤션(강남)에서 장녀 지혜양 결혼.

한규환=2월 부산정보대 전기공학과 교수로 정년퇴임.

제 15 회

김승일=3월 20일 크라운호텔에서 저서 '오메가 햄릿' 출판기념회.

김중광=1월 27일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장남 기범군 결혼.

손방현=대학로약국 신장개업. 부산금정장전동 413-4 BF메디칼 F1. 513-2558 · 011-846-7183.

오봉석=1월 20일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아들 결혼.

이양준=1월 25일 모친 별세. 언양보람병원.

이주남=(변경) 010-2559-2290

장윤석=2월 3일 별세. 부산대학병원.

정준수=(택이사) 부산시 진구 범천1동 837-4. 646-3153.

어디서 무엇을

한도근=(주)BH월드 전무로 취임. 연제구 거제동 643-224. 853-2772 · 018-236-5123.

제 16 회

구수영=2월 12일 별세. 세브란스병원(서울 영동).

권복술=1월 25일 동기 식사제공.

김승호=3월 11일 도심공항터미널(삼성동)에서 자녀 결혼.

노원조=2월 8일 모친 별세. 영락.

손석식=2월 1일 모친 별세.

송규정=1월 6일, 2월 16일 동기 식사제공.

오세규=2월 28일 모친 별세.

이명수=2월 2일 동기 식사제공.

임승언=1월 28일 진주동방호텔에서 장남 철우군 결혼.

최정일=3월 9일 동기 식사제공.

허증화=2월 1~4일 경남 문화예술회관, 정년 기념 우표전시 및 정강 김영기 화백 한국화 전시. 016-9534-5477.

홍정길=1월 2일 동기 식사제공.

제 17 회

김백근=3월 3일 부산관광호텔에서 차남 황녹군 결혼. 자)동래 복천동 500-1 우성베스토피아APT 4-406. 553-1273 · 016-562-1273.

김부근=2월 24일 부친 별세. 중앙성당(문화원 뒤).

김인곤=1월 14일 남천성당에서 장남 정육군 결혼.

김정수=1월 21일 모친 별세. 부산의료원. 남천성당.

오충한=3월 25일 롯데호텔(울산)에서 아들 결혼. 울산 남구 삼산 아데라움 101-1005. 052)269-7422.

이국남=1월 21일 모친 별세. 동아대병원.

허진호=1월 27일 조선호텔에서 장남 결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3-10 F5. 02)703-0546 · 011-9313-6200.

제 18 회

김귀언=3월 24일 63빌딩 시티웨딩에서 장남 결혼.

김길재=(주)M.S.C 대표 · 본부 부회장. 055)389-1001.

김길출=(주)한국 주철관 회장. 291-5481.

김만근=세황전자 대표. 055)251-9713.

김범진=2월 13일 모친 별세. 안산고대병원. 011-739-8779.

김용기=1월 1일 국제cy 전무로 승진. 630-5600.

김용대=김용대 정형외과의원 원장. 622-0024.

김종철=김종철 세무 · 회계사무소 소장. 853-1601.

김철용=3월 19일 모친 별세. 부산의료원.

김홍대=1월 27일 밀알학교에서 장남 결혼.

남두진=금강 예식장 대표. 554-7500.

박동오=2월 28일 양덕여중 교장으로 정년퇴임.

박중순=06년 12월 28일 산부인과 리모델링(비만 클리닉, 여드름 관리, 피부 에스테틱) 신장개업. 322-0555.

서부원=한샘주택 대표. 202-4212.

이성일=(본부 부회장) (주)삼보산업 부회장. 541-0130.

장수일=(주)신성그래픽 대표. 865-2088.

정우룡=2월 4일 웨스틴 조선비치 호텔에서 장녀 지윤양 결혼.

천두갑=유니코상사 대표. 319-3931.

최강등=(주)정공산업 대표. 261-2911.

최재범=2월 1일, 전 서울 부시장에서 서 한진중공업 부회장으로 취임. 011-320-3161.

한기대=1월 28일 리츠칼튼(서울)에서 차녀 태영양 결혼.

제 19 회

권철현=1월 27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차남 결혼.

제 20 회

강두상=1월 4일 장모 별세. 강남성모병원. 011-884-5538.

김만섭=2월 11일 리더스클럽에서 장녀 지은양 결혼.

김정환=3월 10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장녀 결혼. 011-442-2595.

김진환=(마 · 창지역 전 동창회장) 대아건설 회장. 011-568-5718.

김형기=2월 10일 서울 수서동 천주교성당에서 장녀 결혼.

양승태=1월 1일 모친 별세. 강남삼성병원. 010-7164-2601.

이영오=3월 24일 역삼동 성당에서 장녀 결혼. 010-6483-9873.

최명호=3월 2일 모친 별세. 동의의료원.

최장호(故)=3월 4일 삼성본관(태평로)에서 차녀 선아양 결혼.

추준석=2월 27일 한국해양대학교 명예경영학박사학위 수여.

제 21 회

김병탁=1월 21일 모친 별세. 현대증권병원(풍납동).

김원달=3월 22일 대연교회에서 장남 결혼.

김종철=1월 28일 임배서더호텔에서 장녀 결혼. 010-9920-0574.

김홍근=2월 3일 신라호텔(장충동) 다이너스티홀에서 장녀 결혼.

</

<6면에서 받음>

김효근=3월 5일 (주)한국항공우주 산업 상무 이사로 취임. 055-851-6111.
이상우=부친 별세, 자성병원.
이재능=부친 별세, 위생병원.
한예식=인터불고호텔(대구)에서 장례 결혼.

제 25 회

박동건=3월 10~1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난전시회 개최.
이승원=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648-13 세명빌딩 (주)세명. (작)031-861-0866 · 010-4732-1288. (자)02-883-6467.

제 26 회

김광대=2월말 '황토생고기' 잡개점. 남천역 3번출구 남천파크맨션 뒤. 621-3552 · 010-9003-9419.
김용찬=1월 24일 모친 별세, 서울 삼성의료원.
박권병=2월 19일 부친 별세, 서울 아산병원. 017-554-7087.
박장현=2월말 부산칸트리 이사로 당선.
우증덕=2월 19일 별세.
윤홍석=3월 07일 동생 별세. 011-593-1266.
이승무=1월 18일 장모 별세, 서울 대학병원.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010-9328-1010.
장석진=2월 16일 별세.
정문기=1월 부산대의과대 비뇨기과에서 차기 의대학장으로 당선.
조해래=1월 19일 부친 별세, 위생병원. 016-587-1025.
최명해=1월 30일 모친 별세, 침례병원.
한원우=(주)우원건설 대표이사. 011-571-1670.

제 27 회

공민배=3월 16일 역삼동성당에서 장례결혼.
최성하=(주)가드너 덴버코리아 회장. 경기도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517-13 중앙인더스피아 501호.

제 28 회

강대기=이마고 대표. 02)518-8478 · 011-9177-8868.

강제화=매일산업대표. 02)461-5055 · 011-835-5150.
김경해=1월 28일 모친 별세, 침례병원. 018-516-1904.
김무홍=1월 1일 롯데그룹 상무이사로 승진.
김성규=1월 13일 GS타워(서울 역삼동)에서 자녀 결혼.
김천근=2월 09일 부친 별세, 중앙U병원. 011-9501-3680.

김홍종=1월 13일 역삼동 GS타워에서 자녀 결혼.
성락문=2월 1일 부친 별세, 중앙U병원. 010-3590-0919.

오세순=3월 1일 모친 별세, 부산의료원. 011-9081-2469.
윤경섭=1월 5일 모친 별세, 동아대병원. 018-550-8428.

윤필성=3월 15일 모친 별세, 동아대병원.
이성형=3월 3일 모친 별세, 성가정성당. 010-9844-5490.

이양훈=KBS부산방송국 근무. 06년 12월 13일 베스코에서 '숨은 이야기 부산' 출판기념행사.
이인수=1월 30일 부산지방 해양청장에서 해운물류국장으로 취임.

정성태=1월 22일 신원종합개발 전무로 취임.
정영주=창원 정안과원장. 017-844-3398.

조인호=노동부산하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이전.
차정인=2월 8일 장인 별세, 국립의료원.

천윤철=1월 1일 삼성건설 전무이사로 승진.
최경해=1월 28일 모친 별세, 침례병원. 018-516-1904.

김태희=1월 02일 경원대 한의과 교수 겸 한방부속병원장으로 취임.
민동식=대우조선해양 불가리아 조선소 파견 근무 후 삼호조선 구매 담당 임원으로 취임. 070-7887-7005 · 010-7388-3777.

박성철=2월 1일 부산고법형사부장판사에서 부산지법수석부장판사로 취임. 동아대 법학 박사학위 취득.

박영기='이원희·박영기 안과의원' 개원. 지하철 2호선 신천역
김세준(20회) 수영로교회
강순석(21회) 영도중앙교회
김명수(22회) 두지개교회
김해룡(23회) 동신교회
김경호(24회) 부산영락교회
조경일(25회) 수영로교회
김태규(26회) 호산나교회
김춘영(27회) 동일교회
강현안(28회) 호산나교회

어디서 무엇을

2번 출구. 02)423-2277 · 010-8820-5975.

양승용=3월 2일 피자방고 중동점 개점. 해운대 31번 버스 종점. 747-2828 · 011-584-4363.

이병건=(재경 동기회장) 녹십자 부사장으로 승진. 010-3011-3094.

이순원=2월 6일 '이순원·이순태 법무사' 사무실 개업. 금정구 구서동 E-mart정문 앞. 583-4242 · 016-9610-2770.

이종원=3월 2일 진흥그룹 자회사인 (주)일원항공여행사 전무로 취임. 중구 남포동 6가 113-1. 246-1003 · 011-9541-5509.

조한옥=2월 23일 부산자검동부지 청장에서 서울고검형사부장으로 영전. 3월 9일 장모 별세. 동아대병원.

제 30 회

김규철=3월 17일 신수동성당(서울)에서 장녀 아현양 결혼.

김동효=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첨단교통 연구실장으로 승진.

김익수=1월 8일 부친 별세, 수서삼성병원. 011-9092-8401.

김장곤=국민은행(서여의도) 법인영업부장으로 영전. 02)2073-3050.

김창근=1월 19일 장모 별세, 보훈병원 011-9510-3023.

박동규=1월 25일 '티타누스' 양복점 개점. 02)775-8488 · 010-9903-9692.

박홍식=3월 22~29일까지(8일간) 해운대 달맞이고개에 있는 NC갤러리에서 한국 방문 전시회 (<http://kr.blog.yahoo.com/artphs>) 010-5572-9887.

방문수=1월 18일 부친 별세, 중앙병원. 010-7329-0505.

배기경=1월 20일 장인 별세, 수서삼성병원. 011-329-7625.

배승한=삼성전자 상무.

서병관=3월 19일 부친 별세, 울산동강병원. 011-261-8311.

우홍제=3월 4일 부친 별세, 동아대병원. 016-512-5608.

윤두홍=1월 24일 장인 별세, 고대안암병원. 016-261-3856.

이동대=동아대 경영학과 교수.
이성기=2월 20일 장인 별세, 동의의료원. 018-212-3585.

이준성=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
이해정=3월 4일 장모 별세, 서울대병원. 011-9966-6952.

장석일=1월 12일 성애의료원 원장으로 승진. 02)840-7204 · 011-9927-3130.

정경록=2월 1일 현대백화점 4F 명보사(로렉스매장) 개점. 667-0477 · 011-836-5676.

정규홍=삼성화재 해외 업무팀장.

정종용=2월 19일 장모 별세, 동아대병원. 010-7400-1241.

조승환=1월 11일 부인 별세, 부산의료원. 중앙의원(화장동) 개점. 327-1006 · 018-555-3519.

최경림=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으로 영전.

황규태=2월 12일 '황 소아·청소년과 의원' 이전 개업. 진해시 자은동. 055)547-6981 · 019-607-5403.

성당. 019-509-1459.
이천식=2월 22일 부친 별세, 백병원. 010-7546-1091.
황경성=1월 13일 부친 별세, 부산전문 장례식장. 011-9577-9486.

제 35 회

곽성근=3월 6일 '아이들 천국(남포점)' 개점. 코오롱지하상가 가열 27호. 243-3254, 011-886-6868.

김민수=1월 8일 부친 별세, 서울성의료원. 016-810-2842.

김환성=2월 14일 장모 별세, 서울아산병원. 019-217-3432.

박인범=1월 31일 장인 별세, 일산병원. 011-383-1017.

오문세=1월 7일 모친 별세, 봉생병원. 011-587-6885.
진호준=2월 28일 부친 별세, 보훈병원. 018-564-0996.

한만두=(변경) 010-4615-9509.

제 37 회

김정호=1월 25일 장인 별세, 울산대병원.

제 39 회

김춘배=1월 9일 부친 별세, 보훈병원.

박정봉=2월 11일 김해시청에서 결혼.

신명철=1월 1일 부친 별세, 보훈병원. 010-8299-9817.

이상기=2월 27일 장인 별세, 자생병원 011-879-5105.

조임환=1월 26일 '휴플레이스(화장품·다대포)' 3호점 개점. 261-1830 · 010-4852-1203.

경남고 야구 대통령배 본선 진출

제 41회 대통령배 전국 고교야구 부산 예선 대회에서 모교가 1위(6승1무1패)를 하여 4월 25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대통령배 야구 본선에 진출하였다.

전적

<1차전>

3/13 대 개성전 2:11 패

3/29 대 부공전 6:0 승

3/14 대 부경전 10:0 승

3/31 대 부경전 8:3 승

3/15 대 부고전 0:0 무

4/1 대 개성전 6:2 승

3/17 대 부공전 9:2 승

4/2 대 부고전 12:5 승

"한동문 돌아보고 기독동문회(제5회기) 임원 명단 한동문 구원하자"

● 상임고문
정금출(8회) 동일교회
성태경(13회) 안락제일교회

이요셉(15회) 동서교회
이채언(16회) 광복교회
김효남(17회) 동문교회
이대운(18회) 영도교회
김사권(18회) 호산나교회

● 회장
양건종(19회) 만유우리교회
010-2209-2164

● 수석부회장
김세준(20회) 수영로교회

● 부회장
강순석(21회) 영도중앙교회
김명수(22회) 두지개교회
김해룡(23회) 동신교회
김경호(24회) 부산영락교회
조경일(25회) 수영로교회
김태규(26회) 호산나교회
김춘영(27회) 동일교회
강현안(28회) 호산나교회

● 지도목사
이종승(16회) 영락교회
010-7557-0470

● 국장
도명세(23회) 부산경비교도대
011-9544-7466

● 부국장
김승욱(20회) 서부교회
박성수(26회) 예수소망교회
문상식(36회) 예수사랑회

● 편집장
전설태(25회) 대동교회

● 협동국장
박자민(21회) 인애교회
예종복(25회) 진성교회
윤명관(35회) 아바선교회

● 서기
장정석(33회) 수영로교회

● 부서기
홍병일(37회) 구덕교회

● 회계
강창덕(24회) 부산교회

● 부회계
황영식(35회) 구덕교회

● 감사
공기화(21회) 대연교회
문휘영(24회) 거제교회
최현림(25회) 구덕교회

慶南中高基督教同門會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9-2 리틀캠퍼스
TEL.502-8601 / FAX. 507-6957 (E-mail) hyunpo3496@hanmail.net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동문들을 찾고 있습니다.
본회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동문이나 본회의 월보인 "푸른 초장"을 보기를 원하는 동문은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 영원에 관하여 알고 싶은 분이나 고민하시는 분은 본회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태평양 건너온 母校史 자료

미국 구무옥(8회), 교지 <보금자리> 등 4점

정행권(9회) 본부고문이 국제전화 10여 차례 설득
“모교 영구보존” 약속 하자
직접 일시 귀국해 전달

<교고 70년사>에 귀중하게 쓰일 자료 닉 점이 태평양을 건너왔다.

화제의 자료는 발간한 지 60년 세월을 내다보는 경남중 교지 3권과 ‘경고학보’ 1부, 이는 부산과 미국에 각각 살고 있는 두 용마가 10여 차례 국제전화를 통해 ‘모교사 자료로 쓴다’는 테 뜻을 교감(交感)함으로써 빛을 보게 되었다.

이 자료 기증자는 현재 미국 남가주 사이프레스시에 거주하는 구무옥(8회) 동문이고, 이를 기증받는 데 정겹다리가 된 동문은 정행권(9회) 본부고문이다.

교자는 구무옥 동문이 경남공립중학교 1학년 때인 1949년 7월에 발간한 제3·4합병호(신국판 변형꼴)를 비롯해 제5호와 제6호이고, 학보는 1954년 2월에 발간한 제3호(터틀로이드판·8폐이지).

정행권 동문은 이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1년에 동안 국제전화 등을 통해 열정을 쏟았다. 그는 재작년에 발간된 제8회 동기회 졸업 50주년 기념문집 <노을이 더욱 아름답다> 속에 소개된 것을 발견하고 ‘이게 꼭 모교사의 자료로 써여야 한다’며 입수할 것을 결심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쯤 제8회 재경

동기회 강돈수 당시 종무에게 연락했고 이어 이규환 문집 편집장을 통해 구동문의 미국 LA 주소를 알게 되어 이내 국제전화를 걸었으나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여서 불통이었다. 난감했으나, 정 고문은 다시 전에 LA에 살다가 현재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고 있는 조동훈 동기생에게 부탁했고, 조동문은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수소문한 끝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내 연락을 해왔다.

같은 해 5월쯤 구·정 선후배 간의 첫 국제 진화가 극적으로 이뤄졌다. 후배가 신분을 밝히고 교지와 학보를 모교사 자료로 필요하니 기증할 수 없겠느냐고 간청했다. 그러나 선배는 젖마다로 거절했다. 후배가 다시 간곡히 설득하고 또 설득하자 선배는 “경고 교장이 ‘영구히 보존하겠다’는 자필 보관증을 보내주고 동창회보에도 이 과정을 보도한다면 직접 한국에 나가서 진해주겠다”는 답을 주었다.

이후 정 동문은 금년 2월 한국에 일시 귀국한 구동문으로부터 자료 닉 점을 받는 데 성공했다.

정 동문은 “교고 70년 사가 하루 속히 편찬되기를 기원하며, 이 일에 앞으로 성의를 쏟을 생각이다. 구무옥 선배님의 결단에 존경의 뜻을 표하며, 귀중한 자료가 모교사에서 빛을 볼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7년도판 회원총명부 발행> -4월말 예정-



- 회원명부 및 직장·직능·지역별 명부 총2권 발행
- 자사홍보 및 제품광고 접수중
- 개별판매(택배료 포함 30,000원)
- 개인별로 구입 여부 의사 타진 공문 발송
- *회원명부 발간 사업의 수익금은 전액 총동창회 발전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동창회보 직접 발송 예정>

올해 이사회와 정기총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음호부터 동기회의 수고를 덜고 구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창회보를 본부 동창회에서 각 동문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할 계획으로 작업중에 있습니다.

회보제작과 발송에 관한 좋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 회보구독료 20,000원 예정하고 있음.
- 5월부터 본부 홈페이지에서 동창회보를 전자 신문으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모 · 교 · 소 · 식

경남중 제64회·경남고 제61회 졸업식
경남중 제67회·경남고 제64회 입학식



모두 296명이 대학에 진학하였다.

경남중은 같은 달 22일 오전 10시30분 학교체육관에서 이정환 교장 주재로 제64회 졸업식을 가졌다 326명의 용마를 배출했다(졸업자 총 3만 2천 277명).

교직원·재학생·학부모와 동문 등 1,4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졸업식에서는 서영호 군(종합최우수상)을 비롯한 183명의 졸업생이 대내상을 수상하였으며, 동창회장상은 정재원, 운영위원장상은 이창내, 하부모회장상으로 최태수 군이 각각 받았다. 이들 졸업생 진로 현황으로는 일반계 210명, 특성화 및 실업계 95명, 특목고 20명, 기타 1명이다.

그리고 경남고는 3월3일 입학식을 가졌다 10개 반 336명의 신입생이 구덕산 품 안에 안겼으며, 경남중도 3월3일 입학식을 기행하였다(9개 반 332명 입학·일반학생 318명 야구특기 6명, 농구특기 4명, 기타 4명).

경남중·경남고 2007학년도 졸업식이 각각 학교별로 열려 상급학교에로의 진학을 축하하였다. 경남고는 지난 2월 20일 오전 11시 학교체육관에서 김종석 교장(24회) 주재로 제61회 졸업식(사진)을 기행, 졸업생 332명을 배출했다(졸업자 총 2만 9천 715명). 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경남중·고동창회에 정식 정회원으로 가입하게 된다.

이날 졸업식은 교직원·재학생·학부모와 동창회 관계자 등 1,5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각종 수상 현황으로는 학업 최우수상(인문계열·임동규; 자연계열·박상준)을 비롯해

<기별분담금 납입 안내>

각 기수별 분담금은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한 목적사업 시행에 꼭 필요한 밑천입니다.

※ 본부 분담금 입금 계좌

부산은행 028-01-032907-5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안강태

※ 야구후원회 입금 계좌

부산은행 028-01-037573-3

경남중고후원회 안강태

(2006년도 미수분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모교 정독실 꾸밈 후원>

경남고 우수 재학생들의 체계적인 학습 환경 제공을 위하여 과학관에 3개반의 정독실lett 자습실을 꾸미고자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책·걸상 1조 25만원, 총 3,500만원 소요 예산 필요
-후원해 주신 동문·기수·지역 동창회의 이름을 동판에 새겨 영원히 고마움을 표시 할 것임

※1계좌 : 10만원

※계좌번호 : 부산은행 029-01-029648-5
경남고등학교정독실기금 김종석

※성명·기수 필히 기재요망

교장실(김종석·24회) 243-7754·행정실 248-2186

NUTRA·LIFE

뉴질랜드 기능식품 뉴트라라이프

www.elkara.co.kr
www.elkara.co.nz

뉴질랜드 현지 공장/ 연구소 실사

뉴질랜드 초유, 로얄제리, 녹색입홍합
글루코사민,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달맞이꽃종자유

MADE IN NEW ZEALAND

뉴질랜드 대표이사 23회 이상 수
한국부경지사 대표 23회 최 대 일



전품목 뉴질랜드 현지생산 /식약청 정식허가 제품 부산 244-6874/704-8040 뉴질랜드 649-479-1479